

검찰, LG디스플레이 본사 압수수색

삼성MD의 OLED 기술유출 관련 ... 조직적으로 기술 빼냈는지 수사

검찰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삼성MD)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LGD)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4월2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LG디스플레이에서 OLED 사업전략을 맡고 있는 사업팀장(부장급)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팀장은 4월 검찰이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경쟁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내간 혐의로 입건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월5일 구속된 전 삼성MD 연구원 조씨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전무급 고위임원 등 입건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경쟁기업인 삼성MD의 기술을 빼내려고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3>